美타임 100대기업·품질력 1위···현대차그룹 '쾌속 질주'

'신차품질조사' 1위…현대 싼타크루즈·기아 텔루라이드 최우수 품질상 타임지 '올해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지도자 부문에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품질조사에서 1위를 달성하고 미국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최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혁신을 이어간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제이디파워가 지난 26일(현지시 간) 발표한 '2025년 신차품질조사'에서 글로벌 17 개 자동차그룹사 중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거뒀

올해로 39회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 품질조사로 고객이 차량 구매후 3개월 동안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기준이 되고, 업체별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일반 브랜드 18개, 고급 브랜드 13 개 등 총 31개 브랜드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신차를 구매한 약 9만 2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17개 자동차그룹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178점을 기록하며 공동 1위에 올 라다

현대차는 일반 브랜드 순위에서도 173점을 기록 하며 2위를 차지했으며 기아는 181점을 기록해 6 위에 올랐다.

차급별 평가에서도 현대차 싼타크루즈가 중형 픽 업트럭 차급에서 공동 1위를, 기아 텔루라이드가 준대형 SUV 차급 1위에 선정되는 등 최우수 품질 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위 쾌거'에 이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



현대차 싼타크루즈.

업'의 '지도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23년 기아가 '혁신자' 부문에서 선정된 후 두번째이자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합산 판매량 723만대로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안에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누적 판매량은 2981 만대(현대차 1739대·기아 1242대)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판매량 3위를 달성

기아 텔루라이드.

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며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출시된 신차들이 연이은 호평·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5 WRC 그리스 랠리 우승

지난 26일부터 29일(현지시간) 그리스라미아에서 열린 '2025 WRC(World Rally Championship)' 시즌 7라운드에서 현대차 현대 쉘 모비스 월드랠리팀소속 오트 타낙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2025 WRC 그리스 랠리에서 포디움에오른 선수들의 모습. 2위에 오른 도요타팀소속 코드라이버 빈센트 랑데(왼쪽부터)와 드라이버 세바스티앙 오지에, 우승을 차지한 현대월드랠리팀 코드라이버마틴 야르베오야와 드라이버 오트 타낙, 3위에 오른 현대월드랠리팀 코드라이버알렉산드르 코리아와 드라이버아드리안 포모어.

BYD '아토3' 첫 무상 정기점검 서비스 실시

구매 3개월·주행거리 5000km부터

BYD코리아는 "지난 4월 '아토 3' 출시 후 첫 무 상 정기 점검을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BYD코리아는 아토 3 구매 후 3개월 또는 주행 거리 5000km인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토 3 고객은 이번 무상 점검 이후 1년 또는 2

만km, 2년 또는 4만km, 3년 또는 6만km 시점에 걸 쳐 총 4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은 차량 내외부와 하체 등 총 39개 항목을 포함한다. 점검 범위는 차량 외관, 조명 장치, 동력 계통, 고압 전기 부품, 고전압 배터리, 브레이크,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타이어·휠 등이다.

무상 정기 점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BYD 고객센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된다. 점검 시간은 1시간기량 소요되며 고객은 서비스센터 내 마련된 전용 라운지에서 대기할 수 있다.

BYD코리아는 전국 12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BYD 오토 공식 서비스센터를 연말까지 25곳 이 상으로 늘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정기 점검은 고객의 안전과 차량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기본이자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점검 대상 고객께서는 정기 점검으로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나기자 khn@kwangju.co.kr

기아,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무브' 발간

성과 · 추진전략 등 담아

기아가 지난 30일 지난 한 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담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무브'를 발간했다.

올해 발간된 무브는 CEO 메시지와 기업 소개를 담은 '기업 개요(Introduction)', 기아의 ESG 비전과 연간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한 'ESG 추진전략 (ESG Strategy)', ESG 세부 추진 성과와 계획을 정리한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Governance)', 3개년의 ESG 정량 데이터를 담은 'ESG 데이터·지표(ESG Data & Appendix)'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속에서도 '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환경·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고객, 투자자, ESG 평가기관 등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별도 인쇄 없이 PDF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아홈페이지(worldwide.kia.com) 내지속가능경영보고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김해나기자 khn@

볼보,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 사전예약

볼보자동차코리아는 7인승 플래그십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신형 XC90의 사전 예약을 시작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출고는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 첫 출시된 XC90은 전 세계적인 SUV의 열풍을 겨냥해 개발된 볼보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로, 이번 신형 모델은 2015년 나온 2세대 모 델의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이번 신형에는 11.2인치 독립형 센터 디스플레이와 티맵모빌리티 개발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네이버의 차량용 웨일 브라우저 등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SNS,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다.

T8은 1회 충전 시 최대 56km까지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며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모터 145마력)이다. 가솔린 기반 B6는 최고 300마력 출력을 갖췄다. 두 모델 모두 제2종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 트림은 휠 사이즈 등 일부 편의사양의 차이에 따라 플러스와 최상위 울트라가 있다. B6 플러스 트림은 8820만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울트라 트림은 9990만원이며 T8 울트라 트림은 1억 1620만원이다. /김해나기자 khn@

